



반려견은 코로나 19로 부터 안전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동참하게 낫다는 의견이다. 강성진 병원장이 반려견을 진찰하고 있다.

반려동물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야



당신의 강아지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 개에게 흔히 발생
현 상태선 COVID-19로 부터 안전
개 홍역·개 파보 장염 등 더 치명적

최근 몇 달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긴 처음인 것 같다. 일상적으로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일 또한 그러하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와는 또 다른 양상이 연일 지속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내원하는 강아지 보호자들의 궁금증은 “강아지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으로 종종 이어진다.

그 질문에 본인은 “물론 코로나에 걸립니다”라고 대답을 한다. 단, 강아지에게 걸리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장염증세를 유발하는 개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부연설명과 함께 말이다.

강아지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물론 이미 이와 관련돼 강아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백신 또한 있어 미리 예방접종을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 강아지가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COVID-19로 부터는 안전한 것일까? 답부터 하자면 일단 지금은 “그렇다”.

6월 중반 기준 전 세계 COVID-19 확진자가 750만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양성이 나온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그 3건마저도 감염경로, 질병으로의 전환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사의 오류, 반려동물의 피부 등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람과 반려동물 간 전파가 된다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견잡을 수 없이 많은 반려동물들의 감염사례가 보고돼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반려동물의 COVID-19의 감염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고 있다. 물론 COVID-19가 유전정보를 담당하는 핵산이 RNA로 이뤄진 바이러스이고 이 바이러스는 체내에 침투, 바이러스를 늘리기 위해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기 때문에 반려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 상황에서

반려동물 또한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강아지에게는 대표적으로 한번 걸리게 되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이 이를 수 있는 질병인 개 홍역, 개 파보 장염, 개 전염성 간염이 있고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이 있다. 그 외에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자칫 다른 합병증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개 코로나 장염, 캔넬코프, 펠로스피로시스 등이 있다. 다행히도 이들은 현재 모두 백신이 개발돼 있어 생후 6주 이후 적절하게 접종을 하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백신접종의 시기와 가능여부, 방법 그리고 횟수 등은 가까운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 하는게 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바이러스는 다른 병원체와 달리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 없다. 인의에서 일부 질병(인플루엔자, 에이즈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약이 개발돼 있으나 명확히 말하자면 그 약들 또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염의 전파와 증식을 억제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생제와 같은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을 접종해 항체를 생성케 하고 그 항체로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동물들이 생활환경 내에서 병원체와 접촉하지 않는다면 굳이 접종할 필요는 없다. 접촉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강성진·가람동물병원장>

영화관

반짝이다, 독립영화의 별들

6월 초, 무관중으로 치러진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은 언제나 그랬듯 영화와 TV를 통한 대중문화예술의 축제였다. 다양한 장르의 화제작들이 쏟아진 지난 1년을 입증이랄도 하듯 후보자들은 전원 출석에 가까운 참석율을 보였고 뜨거운 포옹 만끽이나 애정 어린 눈빛이 화면 너머 시청자들에게도 느껴지는 꼭 필요한 자리였다.

또한 이번 시상식은 독립영화를 주무대로 활약해오던 배우들이 그 진가를 인정받고 박수 받는 자리이기도 했다. 영화 부문 신인상을 ‘기생충’의 박명훈과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강말금 배우가 수상했고 두 배우는 다양한 단편영화와 독립 영화에서 수년간 스스로의 색깔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온 보석같은 배우들이었다.

대중문화예술 축제 ‘백상’ 독립영화 활약 배우 진가 ‘별새’ 감독상 최대 이변

영화 부문 신인 감독상과 감독상은 각각 ‘82년생 김지영’의 김도영 감독과 ‘별새’의 김보라 감독이 수상했다. 김도영 감독은 배우 출신으로 연출 데뷔작인 독립 단편영화 ‘자유연기’를 통해 독립영화계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른 감독이었다.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된 한 여성 배우의 오디션 현장을 몽글하게 담아낸 ‘자유연기’의 주인공은 바로 신인 여배우상을 수상한 강말금 배우였다. 데뷔작으로 신인 감독상이 아닌 무려 감독상의 주인공이 되며 이번 시상식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된 ‘별새’의 김보라 감독.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1994년을 극의 배경으로 중학생 은희의 당연하지 않은 성장통을 품뽀하고 강렬하게 그려낸 데뷔작 ‘별새’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김보라 감독은 ‘화차’로 감독상을 수상한 변영주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백상 감독상의 트로피를 가져가며 최근 영화계에도 거세게 부는 여풍을 실감케 했다. ‘별새’의 영지

선생님 역할을 통해 인상적인 연기와 개성을 선보인 배우 김새벽은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다. 김경화 감독의 ‘졸락동시’로 데뷔해 ‘한여름의 판타지아’, ‘갯길왕’, ‘초행’, ‘그 후’, ‘풀잎들’, ‘항거’ 등 다양한 독립영화를 거치며 독립영화계의 스타로 발돋움한 배우 김새벽은 지난 해부터 영화계 여우조연상을 휩쓸었던 ‘기생충’의 배우 이정음을 제치고 백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연기가 어려워져 밍지만 나는 연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연기를 오래오래 잘 하고 싶다’는 인상적인 수상 소감을 남긴 배우 김새벽은 차기작인 변성현 감독의 ‘킹 메이커’를 통해 특유의 개성을 상업영화에서는 과연 어떻게 녹여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독립영화를 통해 오랜 시간 스스로의 꿈을 담금질해 왔던 영화인들이 좀 더 큰 무대로 진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당연히 그야 할 일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들이 준비된 창작자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TV에서는 독립영화계의 대두보였던 배우 한예리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를 통해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고 올 여름 최고의 기대작 중 한 편인 영화 ‘반도’에는 ‘꿈의 제인’의 구교환이 악역을 맡아 영화와 그의 연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두 배우 모두 오랜 시간 단편, 독립영화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신뢰를 쌓아온 베테랑들이었다. 홀로 반짝이는 별은 없다는 말처럼 이들의 곁에는 그들의 세월이 있다. 단 순히 경력이라는 한 단어로 통치기엔 아마도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짝이는 사람들은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들에겐 좀 더 많은 박수와 응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2020년 6월 신간 안내

“아마추어 제주 작가가 쓴 문제의 화제작!”

일요일 없는 달력

삶은 장난꾸러기 의식이 만들어낸 꿈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장난꾸러기 의식이 만들어낸 속임수 같았다.
의식의 유희가 만들어낸 허무한 변명이었다.
말썽꾸러기 의식이 만들어낸 매 순간 최후의 만찬이었다.
성수聖수가 앞바다에서 튀어 올랐다.
모두가 바다를 꿈꾸는 각자의 소금인형이었다.

출간하자마자
입소문으로만
5천권 판매 돌파!



김 용 각 바람을 안주 삼아 너털웃음을,
그 바람에 실려 보내 기도 하는 어느 어리석은 자...

TEL. 070-7714-1571 Mobile. 010-6686-3030
e메일 hongikpbc@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hongikpbc
web site www.hongikpbc.com

도서출판 홍익

계좌번호. 농협 351-1104-6746-73